

새싹 편지

2011.10월호



Woosong News

- Sol-live 우송제
- 수시면접 및 학술제

Our Story

- 유아지식 관련 책 추천
- 우리의 눈으로 본 보육정책
- James 인터뷰



Sol-live 우송제

2011년 9월 29일 목요일 추억이라는 주제로 우송제가 시작 되었습니다. 운동장에는 많은 학부에서 와플, 칵테일과 같은 맛있는 음식을 팔았고 네일 아트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장이 열렸습니다. 축사와, 아미빌레의 축하공연으로 본격적인 우송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축제 첫째 날인 우송가요제에서는 우송대학교 학생들의 노래와 춤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무대를 꾸미는데 학생들의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였고 뜨거운 열기와 분위기로 많은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송가요제 후에는 'sol나무' 발표와 시상식, WS golden Lady 영상발표와 축하공연을 끝으로 첫날의 우송제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둘째 날에는 학부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솔브라지 대학 및 밴드동아리 특별공연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다음으로



는 예선을 통과한 학과들의 치어리더 공연이 시작되었는데, 이번 대회를 위해 실틈 없이 연습하고 준비한 학생들의 노고가 돋보이는 아름답고 멋진 무대였습니다. 축하공연으로는 라쌍과 씨스타가 초청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축제를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축하공연을 마지막


로 아쉬움과 흥분, 즐거움 속에서 2011년 우송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수시면접 및 학술제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의 2011년 수시면접이 10월 7일과 8일에 거쳐 열렸습니다. 이번 수시면접이 이뤄진 가정관에서는 유아교육과의 많은 지원자들이 초 초하게 순서를 기다리기도 하고 아쉬움을 안고 면접장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 중 수시면접이 끝난 몇몇 학생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준 면접학생은 순서 대기시간에 면접장 전체분위기가 모두들 앉아서 각자 준비해온 것들을 연습하고 있거나 면접을 끝낸 학생들이 어렵다는 표정을 짓고 있어서 긴장되었다고 했습니다. 면접 준비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예상 질문을 보거나 작년 기출문제를 봤고 홈페이지에서 후기도 찾아보고 부족하다 싶어서 녹음을 하거나 친구와 연습을 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면접이 시작되고, 긴장이 됐지만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분위기도



도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 같아 감사하고, 좀 아쉬웠던 건

 다음 페이지에

많은 인원이 함께 들어가 면접을 보아서 좀 더 제 자신을 나타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들이 예상치 못한 것들이라 조금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원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앞으로 들어올 유아교육과의 학생들이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학생인



해서 더욱 발전해나갈 우송대 유아교육과의 미래가 어떨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2일간 열렸던 학술제에는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팝콘과 포토존, 블랙라이트, 날장동화, 팝업동화, 음판동화, 테이بل동화, 보로로를 찾아서, 손가락인형 만들기, 보로로 파일 만들기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학술제는 우송대학교의 손님들과 학생들에게 인상 깊고 재밌는 추억이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2011년 수시면접과 학술제도 우송대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수고로 무사히 멋지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 보육정책



점점 늘어가는 저출산 보육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 보육이 이런저런 방향으로 발달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부모들 3명중 2명이 “현재의 보육정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보육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 보육이 끊임없이 개정되고, 새로운 보육제도가 시범운영 되는 등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과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아 보육이나 장애아 보육 등 다양한 아동에 따른 수요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거나 뒷받침할 시설이라든지 정책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요자들은 공공 보육기관과 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 시설에 종사하는 교사 및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난해 보건복지 가족부와 여성정책연구원이 펴낸 보육시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보육교사의 ‘평균’ 급여는 126만원이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월 평균 급여가 155만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평균 월급 이어서 민간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초임으로 100만원을 훨씬 밑도는 급여를 받습니다. 현재 경제 악화에 따른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양육자의 부담이 줄지 않음은 물론이고 교사들의 처우 면에서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개선은 앞으로 발전해왔듯이 현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Ou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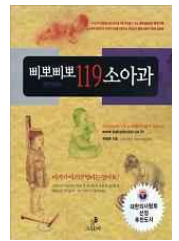


유아지식 관련 책 추천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우송대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유용한 책을 추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본

의 책 추천으로 1순위 EBS에서 나온 ‘아이의 자존감

이 있습니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유아교육 전공자들이나 학부모들의 추천이 가장 높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유아에 대해 흔히 알고 있는 오해나 새로운 진실을 알게 해줄 수 있고, 전공 책에서만 배웠던 내용을 쉽게 다기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전공 시간외에 다양한 내용을 보충해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비비 119 소아과’라는 책은 아이들이 쉽게 걸리는 질병을 중심으로 증상별 대처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현장에서 유아들을 위한 대처법이 있어서 아주 유용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 나온 책 모두 일상 생활에서 전공지식과 관련하여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므로 전공자는 물론 부모도 쉽게 읽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 좋습니다. 책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키울 수 있어 도움이 되고 자기계발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어떻게 사나





James's Interview

Sometimes you can see a foreign man in Woosong Gwan. A lot of people might be wonder who he is. His name is James Cameron Greig. Here is an interview about it. so, let's learn about him !

What do you think about the Woosong University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tudents? – I love all of the students that I have met in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 would like to get to know more students, as well. Everyone has been very nice to me and all of the students I have had a chance to get to know are very smart and excellent students. Everyone works hard but always has a smile on their faces so it makes me very happy to be around people like that.

Currently, you are working as a kindergarten teacher in Tan-bang dong.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job? – It has been a lot of fun, so far. I have never studied to be a kindergarten teacher... I trained to be a high school teacher and have taught only university students for the last several years. So it can be a challenge, sometimes. The kids are very cute and energetic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teaching young children like that is to have fun, and let them have fun. I spend more time getting jumped on by the children then I do actually teaching them English, but that is okay! Young children learn naturally and playing with them is the best



way to communicate with them. **There is an international class in the Woosong kindergarten. Have you met the international classroom teacher?** – Yes, I have. I helped get Marianne settled into Daejeon When she first moved here to start her job. I showed her around the city and tried my best to help her in any way I could. We have become friends, and we continue to work together.



Is there a difference between the Canada and South Korean kindergartens? – I have never taught in a Canadian kindergarten. From what I understand, there are many similarities and the biggest differences are in specifics related to the curriculum. Obviously, in Canada the language focus is on English and French, instead of English and Korean (and sometimes Chinese and Japanese) like it is here. Both countries seem to be about what people call “student-centered” education, so that makes them very similar. It’s all about learning through play and incorporating music and art and creativity into a child’s learning process.

Finally, what you want to say for the students? – I hope that everyone is enjoying their semester and having fun. I am confident that all of the Woos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students will make great teachers in the future...don't forget that it is important to have fun while you are in university, too! If anyone in our department needs my help with anything you can call me or visit me in my office (Room 110 in Woosong Gwan) anytime you'd like. Don't be strangers!!!

유아 상식

잘못 알고있는 유아 상식!

■ 야채가 싫다고 하면 과일을 많이 먹인다.

야채나 과일은 모두 비타민 C의 중요한 공급원이지만, 야채와 과일의 성분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당근, 호박 등 녹황색 야채에는 감기 예방에 좋은 비타민 A가 풍부하지만, 과일에는 그다지 많이 들어 있지 않다. 또 녹색잎 야채들에는 칼슘도 들어 있지만, 칼슘이 들어 있는 과일은 거의 없다. 즉 과일이 야채의 대용품은 아니므로, 야채를 잘 먹지 않는 아이에게는 좀더 특별하고 세심한 조리법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아이 때 찢 살은 다 빠진다.

어른이 살찌는 것은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지만, 아이들은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포의 수는 어른이 되어도 줄지 않는다. 따라서 아이 때 비만이었던 아이가 크면 살이 빠지나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이 빠졌어도 지방세포 수가 늘어난 아이는 살이 잘 찌고, 찢 살을 빼기가 그만큼 더 힘들다. 하지만 아이의 몸무게를 함부로 줄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때는 몸과 두뇌가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고 자라는 때이기 때문이다.

숨은 그림 찾기



<찾을 그림>

4단 만화



<낙엽>

버섯, 못, 알파벳F, 촛불, 고추, 증절모자

By. 또바기

<발행처>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http://childedu.wsu.ac.kr>
042) 630-9360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7-2 (300-718)

<발행인> 성원경 <편집인> 이예지

<만든이>

- * 박민정 * 안선경 * 이예지
- * 김연수 * 문진아 * 송하나 * 박혜령
- * 김민아 * 이정은 * 조아름